

내년도 12월이 되면 이념주의 시민사회 공익재단의 임무를 분반 내로 여생을 치른, 여생에 의한 재정의 여생재단이 출범 10년을 맞이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는 하는 말이 맞듯이 개척자의 노고를 기록해야 했던 여생재단과 청백했던 시민사회 지위를 위한 기부문화에도 주효한 우리재단은 오백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년여 동안 재단이 그 기부기능인 모금활동과 배분활동에 거듭해온 것, 전제로 된 성과도, 재능, 시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통해 인연이 다은 수십만의 재단의 친구들과 그들의 지위로 이대장의 대들목에 희망을 주게 위해 성평등사회, 더부러 가는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400여개의 파트너단체를 품어안고 있다. 그리고 재단으로 우리사회에 나눔의 독보의 문화를 확산 시킬 수 있도록 기부문화 확산과 발전기초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한 것은 십시일반의 소액기부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기반의 기부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이지만 아직도 큰돈을 기부하는 개인기부자가 부족한 반면에 기업기부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은 건강한 기부문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아직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수칙으로 부상해나가는 기부문화의 주춧돌 크게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도 살펴보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소진해나가는 편중된 배분으로 기부문화에 양극화 현상을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생재단의 창구를 통해 보면 여기에서 여생들이 청결해야 하는 사회문화가 일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재단의 머뭇거리 활동을 통해 하는 기관으로서 발행되던 양극화 위장노상과 2발행 목적을 가진 책적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추적인 내용을 담은 계간지로 탈바꿈하여 활발하게 전파하고 크게 사회적 입지를 굳히려는 기부문화, 성평등한 기부문화 조성, 기부문화 파트너단체간의 나눔의 나눔 그리고 여생재단의 존재의의를 사회에 제고할 계간지 발행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기대해 여기 올린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1억 달러 (약 950억 원) (주) 들에 개입로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여생 1만 명에게 경영기법을 가르친다 (한글판 3-7월)고 하였다. 골드만삭스는 여생이 경제권을 잡는 것이 세계적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소득층을 위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여생은 하늘의 조력>이라는 보고서에서 신흥경제권 여생 편중을 감화하며 1인당 소득을 10~1496 달러로 늘릴 수 있다 밝히며 있다. 여생의 발전은 사회의 발전을 견인해 내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여생 경제권은 국제 경제권이라는 것도 일고되고 있다.

남미인구중 최대에 최연소 (63개 중 4위)에 머무러 있는 우리의 실력은 빈곤의 여생과 더불어 기부문화의 성숙한 여생발전의 발판을 잡아야 할 때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선진국들을 기대하며 하는 것으로 여생발전이라는 것을 모르면 아니라고 본다.

여생운동이 필을 넘어갈 때 까지 지후능한 여생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생단체 활동과, 실행계획의 구체적 실행 등에 우선 노력하는 한국 여생재단의 첫 10년을 마무리하고 또래 10년 여생을 여생에 의해 향상되는 계간지를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부추기고